

# 걷고... 달리고...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



## 서어나무숲 - 아름다운 마을숲 선정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 국악의 성지 - 전시 체험관 · 독공실 · 야외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져 상황마을 다랭이논 - 수많은 큰 돌과 작은 돌을 입맞춰 쌓아놨

지리산둘레길은 117개 마을의 옛길과 숲길, 고갯길, 강변길, 논둑길 등이 이어진 300여km의 국내 최초의 장거리 트레킹 코스이다.  
민초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리산은 언제나 사람들을 반겼다. 바로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관문이었다.  
사람들은 붓짐을 지고, 마을과 마을, 정터와 정터를 오가며 지리산에 둘레길을 남겼다. 그래서 지리산둘레길에는 우리 조상들의 오래된 생활문화가 녹아 있다.  
붓짐 짐사들은 또 지리산의 고을과 고을을 넘나들며 둘레길에 이야기와 소리를 녹여 놓았다. 판소리 동편제도 이렇게 탄생했다.  
지리산둘레길의 중심에는 남원이 있다. 시작과 끝도 남원이다. 1구간 주천~운봉, 2구간 운봉~인월, 3구간 인월~금계에는 보석같은 비경이 숨어있다.  
1구간 주천~운봉은 14.3km로 운봉의 너른 들과 지리산 북사면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구룡치를 넘어 옛 사람들이 남원진을 보러 다녔던 장길로 옛길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1구간은 주천면 소재지인 외평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을 지나 논로가 끝나면 개서어나무숲이 나온다. 바로 개미정지이다. 정지는 쉽다. 남원진을 보러 가던 사람들이

집을 내려 놓고 숨을 고르던 장소이다. 개미정지를 지나면 바위 사면을 따라 길이 만들어져 있다.  
가쁜 숨을 몰아 쉬 때쯤이면 중재가 나온다. 중재를 지나면 구룡치가 나온다. 구룡치에서부터는 숲길이 이어져 걷기 좋다. 계곡을 만나 손과 얼굴을 씻을 수도 있다.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낮은 소나무도 볼 수 있다.  
숲길이 끝날 즈음에 험터가 있다. 이곳은 회덕마을로 징검다리를 건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정자나무 험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 채전에서 자란 밀 반찬을 안주삼아 시원한 막걸리를 곁들이면 부러울 것이 없다.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다.  
**▲ 서어나무숲**  
1구간의 명품은 행정마을 소나무 숲과 서어나무 숲이다.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 십 그루 노송이 반긴다. 저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노송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행정마을 소나무숲 맞은편에는 서어나무 숲이 있다. 서어나무숲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 180여 년전 조성한 인공숲으로 마을을 지켜주는 비보림이다. 주민들의 험터로, 아이들과 새들의 놀이터이다.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됐다.

2구간은 운봉~인월 9.4km이다. 운봉~인월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산지대인 운봉고원을 지나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의 큰 장인 인월정을 만날 수 있다.  
옛날 통영별로였던 이 길은 영남과 호남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길목역할을 하기도 했다. 통영계 관소리의 본고장 비전마을과 석장승이 지키고 있는 서림공원, 이성계장군이 왜구 섬멸한 승전을 기념해 만든 황산대첩비지도 이 길에 있다.  
운봉에는 정승이 많이 있다. 해발고도가 높은 운봉은 생활하기 힘들었다.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단결이 필요했다. 그 힘은 바로 마을의 수호신 석장승이었다.  
또, 지리산 운봉을 침입한 왜구들이 석장을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고도 한다.  
신기교를 건너 제방길을 따라 걷다보면 황산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전촌마을이 나온다. 전촌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소나무 숲이 아름답다. 전촌마을에서 다리를 건너면 비전마을. 비전마을에는 황산대첩비가 있고, 바로 옆에는 동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가람 송흥록의 생가가 있다. 송흥록 생가 오른쪽으로는 국악의 성지가 자리잡고 있는 황산이 있다.  
**▲ 국악의 성지**  
지리산둘레길 2구간의 명품은 국악의 성지이다. 지리산 자락 황산기슭에 자리잡은 국악의 성지에는 국악전시 체험관, 독공실, 야외공연장, 국악인묘역, 사당 등의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국악을 배우고 체험할

수도 있다. 국악의 성지 바로 아래에는 가람 송흥록 생가가 있다.  
3구간 인월~금계는 19.3km로 약 8시간이 소요된다. 인월~금계에는 장항마을, 배동마을, 상항마을 등 지리산 자락의 옛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구간 등구재는 전북과 경남을 행정구역으로 가르고 있지만 옛날 이 재를 통해 사람들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다. 이곳을 지나다 지루하다 싶으면 잠시 길을 벗어나 실상사에 둘러 구산선문의 가람 실상사를 둘러보는 것도 지리산둘레길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이다.  
인월은 통영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인월역(驛)이 있었다. 인월 5일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약초시장이었으며, 화개장터와 함께 전북과 경남 사람들이 어우러져 장을 봤던 곳이다. 지금도 전국 5대장에 꼽힐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인월시장 상인들은 둘레길 탐방객들을 위해 주말마다 문화와 재미가 있는 토요일장터를 마련하고 있다.  
인월은 운봉과 마찬가지로 이성계 장군의 황산대첩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람천을 따라 걸어가면 중군마을이 나온다. 중군마을은 임진왜란 때 군사 요새지로 군대 편제 중의 하나인 중군이 주둔했다고 한다.  
**▲ 상황마을 다랭이논**  
3구간에서 명소는 단연 상황마을 다랭이논이다. 수 많은 큰 돌과 작은 돌을 입맞춰 쌓아 만든 다랭이논은 선조들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다. 한 뼘의 농지라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날 고생했을까. 그런 고난의 터전이 후손들의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가을이면 누런 벼이삭이 가장 먼저 활짝거린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6**  
**진안홍삼축제**

**진안홍삼, 건강을 쓴다!**

**10.12<sup>수</sup>~16<sup>일</sup>** 마이산북부 마이돈 테마파크

**진안홍삼축제 오면, 참말로 좋당게요~**

하나 건강보다 중헌게 머가 있간디!  
둘 열심히 일한 당신, 힐링하러 진안 와야지잉~  
셋 10월, 진안홍삼축제는 부모님께 드리는 히트 효도상품!

**진안홍삼축제 알면, 더 즐겁당게요~**

**하나 진안홍삼, 건강을 쓴다!**

홍삼명인 전통증상체험, 홍삼기업홍보 및 제품판매관, 홍삼스파, 홍삼죽, 진안홍삼 반짝경매 등

**둘 진안홍삼, 행운을 쓴다**

황금홍삼을 찾아라, 일월오봉도 왕의기운 포도존, 몽금척무 퍼레이드, 진안군청 역사부를 이겨라! 등

**셋 진안홍삼, 사랑을 쓴다**

마이산프로포즈,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등

**넷 진안홍삼, 풍성한 먹거리를 쓴다**

명품 진안홍삼현우, 진안축대지, 홍삼주전부리(홍삼초코파이, 홍삼떡볶이, 홍삼호떡등), 청정 농특산물 (표고, 사과, 나물등)

주최·주관 : 진안군·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 문의처 : 진안군 문화체육과 063)430-2391~3 | 홈페이지 : <http://jinanfestival.com>